

과학기술 그리고 돈과 꿈

60년대 KIST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과학기술은 우리 희망이었다. 선진국에서 활약하고 있던 인재들이 초빙되었고 이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원대한 비전은 대덕단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80년대 이후 기술적 감각이 있는 CEO들이 등장했고 기업의 고급 두뇌들이 첨단 분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비록 경제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우리 과학기술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잠재력으로 남아있다.

꿈을 상실한 과학기술

그러나 과학기술이 갖고 있던 꿈은 그 빛이 상당 부분 바랬고 국가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 겉으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열정이 식은 지 오래이다. 대학은 권위로 덮인 폐쇄공간에 안주하고 있고, 출연연구소는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는 중이다. 기업연구소는 단기과제에 매달리고 있고 젊은 연구자들은 보람을 찾아 벤처로 물러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추락은 국가사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를 끌고 가야 하는데 흐름을 따라잡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창의와 혁신이 넘쳐야 할 과학기술계는 관료적 보수적 집단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초기단계에 선각자들이 가졌던 순수성과 열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부처는 영역 다툼이 한창이고 출연 연구소는 경직적인 관리로 인해 활기가 줄었다. 이대로 가면 과학기술의 싹들이 고사해버리고 고립과 대외종속이 한층 심화될 것이다.

황금알은 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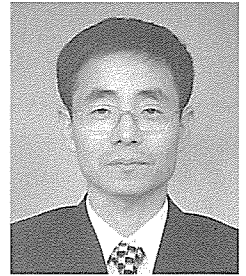
과학기술은 돈을 벌고 꿈을 실현하는데 존재 의미가 있다. 국내 과학기술계는 돈이 나쁜 것이 아닌데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황금을 돌로 보았던 선비정신이 남아 있어서일까. 영화천재 스피버그는 열두살 때 친구들을 집에 불러모아 8밀리 영사기로 영화를 보여주었다. 한명당 35센트를 받았고 동생을 시켜 팝콘을 10센트에 팔았다. 이처럼 프로는 실력과 함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돈이 가치의 척도인 이상 과학기술도 돈을 벌어야만 한다. 기업에서는 연구개발(R&D)을 Research and Disillusionment로 표시하기도 한다. 연구개발이 돈이 안되니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이다.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실용화와 효율화가 가속된다.

한편 과학기술이 돈에 너무 집착하면 꿈을 고갈시킨다. 중장비는 인간에게는 이로운 기계지만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했다. 이윤만을 중시하는 연구개발은 안전성이나 환경친화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다. 유전자 조작식품을 둘러싼 논쟁은 과학기술이 상업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 준다.

‘과학이 달에 갔다 와서 얻은 것은 돌맹이 몇 개이고 잃은 것은 꿈과 낭만이다’라는 말이 있다.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나쁜 영향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꿈이 없는 과학기술은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구 소련 과학기술자를 스카웃하는 과정에서 창피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우리측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들과 보수를 흥정하면서 잘난 척을 했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국내에서의 돈만 알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이제 과학기술에서 꿈을 재발견해야 한다. 꿈은 과학기술 활동을 촉발하고 참여자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평생을 침팬지 연구에 바친 ‘제인 구달’은 자연 속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를 느꼈다. “과학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과학기술은 돈을 벌고 꿈을 실현하는데 존재의미가 있다. 황금알을 들고 보라는 선비정신 때문일까, 국내 과학기술계는 돈이 나쁜 것도 아닌데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제 과학기술은 꿈을 재발견해야 하는데 과학기술이 돈에만 너무 집착하면 꿈은 고갈된다. 과학기술이 대중화하려면 일반국민에게 꿈을 심어야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바탕에 꿈이 있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에 꿈과 돈을 결합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李彦五
〈삼성경제연구소 이사〉

살기 위해서 이다”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과학기술 대중화는 일반 국민에게 꿈을 주려는 노력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바탕에 꿈이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 + 꿈 = 돈의 공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과학기술과 꿈을 결합하여 돈을 벌자. (과학기술 + 꿈 → 돈) 중고 비디오는 콘텐츠별로 가격차가 엄청나다. 명화나 디즈니 만화는 최소 5천원을 내야 살 수 있지만 무협물, 에로물은 5개에 천원이면 족하다. 좋은 비디오와 별볼일 없는 비디오는 하드웨어는 같아도 꿈에서 차이가 난다. 이처럼 디자인, 브랜드, 이야기가 있어야 과학기술의 가치가 올라간다.

전남 해안에는 황칠나무가 자라고 있다. 껍질에서 채취한 수액은 황금빛 고급 도료의 원료로 쓰인다. 중국 황제의 의자에 칠해졌고 7대 조공품의 하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백년간 단절되었던 황칠이 재현된 것은 한 개인의 집념에 의해서였다. 현재는 전남 일원의 수목원, 대학 등이 참여하여 육종, 처리기술 안정, 응용분야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성공만 한다면 우리도 말레이시아의 고무나무와 같은 고수의 수종을 확보하게 된다.

전통의 재현, 토종의 자원화 등은 과학기술 활동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게 한다.

둘째,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 (과학기술 + 돈 → 꿈) 사람들이 실현하려는 꿈은 풍요, 건강, 안전, 환경 등으로 다양하다. 과학기술은 이러한 꿈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렵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돈이 흐르지 않고 과학기술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뿐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의 하드에 돈이 투입되어 의도했던 꿈을 실현치 못하였다. 한 예로 자동차 기술개발에는 열심이었지만 교통시스템 운영과 환경·안전에는 소홀하였다.

학제적으로 시스템 연구를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해결은 꿈을 실현하는 우회적인 방법인 것이다. 과학기술을 복지 목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골 폐교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여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퇴직 기술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 과학교실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꿈에 호소하여 돈을 모으고 의미있는 과학기술에 투자하자. (꿈 + 돈

→ 과학기술)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 모두 연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자, 해당 공무원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벤처마케팅 필요가 있다.

벤처들은 꿈을 구체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돈을 모은다.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가의 꿈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벤처업계에서는 30초 내에 상대를 감동시켜야 투자유치에 성공한다고 한다. 허준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매실 가격이 30% 올랐고 음료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건강에 대한 꿈 때문에 기꺼이 돈을 내놓은 것이다. 상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도 경영자, 투자자, 납세자의 꿈을 건드린다면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돈을 벌고 꿈을 실현하는 것이 과학기술 본연의 모습이다. 돈을 금기시하거나 돈에 빠지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꿈이 없는 과학기술은 천박하고 너무 치우치면 ‘구름 속 과학기술’로 세상과 동떨어진다. 새로운 시대의 과학기술은 돈과 꿈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돈과 꿈은 모순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여야 한다. 과학기술은 돈과 꿈을 맺어주는 창조의 장이다. 